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잘하는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. 언제나 아프고 포기하는게 일상이며 세상에서 나를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안좋게 보는 것 같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이고 있습니다